

기도하는 해(행16:1-10)

전도를 두고 하나님앞에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받은 제목은 기도하는 해 본부는 빛의 성전, 세가지들, 전도시스템을 말합니다. 우리도 세가지들과 함께 성경에 가장 중요한 전도시스템 팀 사역 전도를 언약으로 잡았지요.

제 생각인데 하나님이 우리교회에 남미는 특별하게 문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남미 언약이 늘 있어야 하는데 그중에서 올해는 남미 나라담당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세가지 들도 우리가 금토일 시대안에 들어있는 단어다. 이것을 두고 잡은 언약이 다음에 필요한것 진짜 기도하는것이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메시지속에서 많이 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도이다. 왜냐면 언약은 완성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사도바울이 현장에서 전도하려는데 문이 막혔다는 것인데 이때 당연히 기도하였던 것이 시대적인 전환점으로 나타났다. 이런 전환점이 우리에게도 계속 나타났다. 꼭 큰 사건만이 전환점이 아니고 생각하나 바뀐것도 전환점이다. 모든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성령인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실행에 옮겨야 한다. 마음에 들어와 언약되어야 하는것은 그것이 들어와 나타나기때문에 그렇다. 기도에 대하여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으로 하고 약속대로 한다.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것이 우리의 기도이다. 올해는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한해이다, 응답이 많이 필요하잖은가?... 진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간단하게 예배드리는 것도 괜찮다. 전에 몇번 말했는데 오래전 20전쯤 비행기만 타면 머리가 아팠다. 내리면 괜찮다. 반으러 나누어져서 오른 쪽 왼쪽이 너무 아파서 금이 갈 정도로 피부가 트였다. 제 옆자리에서 늘 가는데 너무 힘든 모습을 보았다. 비행기 올라가니까 기압이 올라가지 머리를 의자 밑으로 내리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동부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에 자주 왔는데 9번 이후에 오고 난 뒤에 이민을 왔다. 내 와이프는 미국에 와서도 비행기 타면 그랬다. 그렇게 되면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부르고 마 16:13-19 외운다. 성경필수가 없어서 그것가지고 메시지 하면서 기도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문제 해결하신 참선지자, 참제사장, 창왕이라고 고백하면 3-4분 된다. 그렇게 기도하면 일단 한풀 꺾인다. 항상 그랬다. 그리하다가 어느날 비행기 타도 이상 없다. 안아픈데... 그때는 개척을 해서 어느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저는 아파트에 살았기에 예배를 못드리고 그분은 하우스에서 살았기에 예배가 가능했다. 그 예배드리고 나면 몇그룹으로 포럼을 했다. 말씀도 포럼을 하고 기도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 하였다. 그것을 몇개월 했다.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한국가는데 기도해주라 이런거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그때 그 기도때문에 나왔다. 그날 같이 갔는데 좌석이 따로 되었다. 제 아내는 창문가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그럴 상황이 안되었는데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른다 20년이 되었다. 그 머리 아픈것 때문에 적어도 5-10년은 고생을 했었다. 모르는 것이다. 네가 뭐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냐 기도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것을 언약으로 주었잖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전환점이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막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마게도냐 들어가서 보니까 이쪽에 하나님의 계획이있었다는것을 알게 된것이다.

1)행13:1-3 하고 싶은 마음은 일단 하나님이 주셨겠지만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것이다. 행 16:11-15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행16:16-18 기도하러 가다가, 잘하는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하다가, 잘하는것이 아니에요 늘 하는 것중에서... 늘 기도 하고 싶은 사람은 진짜 영웅이 된다.. 그런 사람은 시대의 한명이고 그 나머지는 전무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24가 되었다는 것은 기도가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것이다. 감사하고 기뻐서 저절로 하는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로망아닌가?... 여하튼 이런 저런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다 있기를 바란다. 출애굽기3장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이때 이후로 모세 인생이 완전 180도로 바뀌었다. 그전에는 고민 많았겠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이게...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한다 살인자라서. 처가집에 양을 치는 일로 인생을 보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인데 기도할 상황 힘든 상황이였다. 힘든것은 은혜였다.3) 한나 - 왜 한나는 기도를 했는가 힘들어서 그렇다. 나는 왜 이래 이런 사람 많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처음에 예수믿으러 가기전에는 더 했지 왜 내가 이렇지?... 하나님의 계획을 만난 사람은 이것이 시대적인 계획인것이다 4)행1:14 사람들도 편안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불안한 중에 은혜로 모였다 잘못하면 죽게 되는데, 평안하고 감사한 곳이 아니고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 기도 응답을 하신것이다. 모세도 고민 많았을고 왜 하나님이 복음을 막을 까?... 기도하라.

2.우리가 잡을 언약- 가장 먼저

1)성경적 복음이다. - 이것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바르게 나왔다면 모든 응답, 인생의 근본조건이다. 문이 왜 안열릴까? 문여 열리는 과정이다. 하나도 어려움 없이 응답받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님이 역사하실것이라는 것 믿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것이다. 이게 맞지 않냐? 이런 응답을 가진 아주 성경적인 증거... 하나님의 소원은 한가지 전도인데 전도에 대하여도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써놓았잖은가?

2)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막아주셨는가? 전략이다. 마게도냐로 가는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전도의 방향중에 하나다. 마게도냐 몰랐으면 ... 환상을 안 보여주었다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것인가? 아시아에게 계속 발버둥을 쳤겠지... 결국 포기 했겠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나님은 시간표 되고 그 계획대로 합니다. 내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도를 내가 하는것이다. 알아야 한다. 전략도 그중에 하나이다. 하는 방법 내용중에 하나이다.

귀신들린 여종을 찾아 간수를 찾아 이것이 내 뜻이야... 이렇게 해.. 어떻게 할것이나 기도하라. 인도할테니까.. 이 마음에 바울이 들어난거다. 바울이 성령인도받는 모습으로 나타난것이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는 다음이다. 하나님의 전도를 하겠다는 마음이다. 나는 내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속으로 나도 사도바울처럼 되어지는 전도를 보고 싶다는 전환점, 이 마음이 있어야 해..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아무리 뛰어난 전도자가 자기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아니기에 사람들을 만나고 살리는 것이다. 내 전도는 나도 죽는 것이다. 사단을 기쁘게 하는 전도를 하지 말라.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겠다는 마음이다. 그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고 기다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전로를 만나는 것이다. 사도바울이 마게도냐로 간것은 마게도냐로 윈전의

간수를 만날때에는 로마 시민권을 내놓으면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더 큰 전도문을 열것이다. 나중에 하나님뜻과 맞

기에 감옥에서 지진이 난것이다. 모든것은 완성되고 난뒤에 사도바울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전도계획에 자기가 헌신해서 자기가 완전전도를 만났다. 출발 마음이다. 더 출발 참된 복음이다. 바른 복음이 있어야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더 계획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유는 모르겠고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마음, 말이 달라진다. 사역자는 메시지가 달라져버린다. 이것만 알아도 대단한 메시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가 되어지면 놀라움이 연속이 된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가슴에 언약을 전파 복음을 알기는 알지며 너무나 잘 알고 간다. 어느정도 이해되고 어느정도 신앙의 바탕에 가린다. 이거시 진짜 깔려 있으면 여러분 삶에 계속 낭오것인데 보좌의 축복이 계속 나오겠는가? 문제가 좀 나올까요? 모르지요 10년후에도 안 나올 수 이써 20년후에도 안 올 수도 있다.

이것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지 이것이 가장 기본이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 복음을 모르면 어렵고 안다면 하나님과 의 세계가 달라진다. 진짜 기도속에서 진짜로 누리면 24가 되어진다는 것이다. 나는 앉아서 전세계를 다스린다고 말한적이 있다. 일단 제마음에 좀 심한편인가 내 속에 나오는 단어를 붙잡으라 내가 어디 쯤에 있는지 보라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졌는지 확인해보라. 그래서 감사해야한다. 남미 끝까지 마음을 주셔야 한다. 처음에는 말만 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아니더라. 끝까지 가야 한다. 이거 말고는 할일이 없다. 세상에 무슨 가치있는 일이 있어요 이것 말고? 이런 가치가 보여야 한다. 눈에 보이면 에 생각이 달라져 버린다. 사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성경적 전도와 성경적 전략이다. 이것은 굉장한 지식이다. 아주 대단한 것이다. 이것 모르면 헤메이는 것이다. 잘 하는데 되돌아 보면 내리 헤매었어. 도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내용은 3)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것이 내게 언약으로 서야 한다. 달라진다.

4)하나님의 모든계획은 절대 계획이다. 아무도 뒤집지를 못하고 뒤집어 지지 않는다 가다 중단할 자가 없다. 우리가 이런것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아그런가? 가다가 상황이 일어났다면 상관없다. 정치, 경제문제로 상황이 힘들어졌다. 세계복음화가 나의 언약이 되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것을 정복하라. 인생의 모든 팩트를 정복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만드신다. 세계복음화로 복음은 그렇게 만든다. 권세는 이미 와있었는데 언제 나타나는지, 세계복음화의 언약속에 있으면 다연히 언약이 다이다. 하나도 안 나타난것은 아니다 조금씩 나타났다. 믿지 구원받았어 그런데 지 혼자 놓고 있어 거기에 하늘군대를 보낼 이유가 없다. 그것도 지 마음대로 안되고 허깨물면 다치기만 하지 안돼>>> 마음을 주셔야 한다.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한다. 내 인생의 승패가 전도에 관한것이다. 내 영적승패는 복음에 달려 있다. 내 눈에 보이는 인생의 승패는 전도이다.

3.준비할것

- 1)정확한 복음이다. 지금 듣는 메시지 자료를 조금만 정리하면 된다. 전도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전도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 믿게 하는거스오만 끝내면 안되요.
- 2)정확한 복음을 기초로 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구원의 길 메시지 전하는것이 대단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되고 그 것을 현장에서 전도한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짹 짹 끼리 소통하라 등록만 해놓고 있지 말고 움직이라. 힘을 전달하는 것이 포럼이다.
- 3)오늘 말씀처럼 뜻을 딱 정해야 한다.하나님이 주신 힘이 난다. 이 사람은 지속 할 수 있다. 늘 말씀듣고 기도하는

중에 그리로 간다. 지속하라.

4)짜지는 정규적으로 현장가는것을 정해야 한다. 바울은 전도운동의 자기 규례가 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행해야 한다.

결론 몇가지만 정리하겠다.

1)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까도 모세 이야기 했지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이라는 사명을 받았다. 이때부터 인생이 그전에 창세기를 썼어요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명, 메시지를 받은 후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딱 만나야 한다. 내 마음대로 만들수가 없다. 말씀을 자꾸 듣고 있으면 어느날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메시지를 듣는 훈련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근본은 그리스도 실제 언약은 세계복음화이다. 그다음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다.

2)복음은 세상을 초월하는 지식이다. 단순이 복음은 생명이 다. 시공간 초월한다. 정복하는 지식으로 누린다. 증거가 있다. 내게 증거를 주신다. 누구에게 이런 증거를 주실것인가? 복음으로 모든문제 해결, 복음을 누리려는 발버둥 치게 될것이다.

3)세상에는 말이 많다. 살마들이 이 소리 저소리 많이한다. 필요없이 성취되는 것이다. 약속이다. 그러니 약속을 꼭 잡아라. 시간이 걸리지만 완전한 답이다.

오늘도 많은 단어중에서 기도하는 해이다. 망해지는 시간이 아니고 발전되는 시간 어떻게 그렇게 들어오냐 기도이다. 내게도 이 단어가 들어야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마6:33 너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답 나버린것 마음이 통해 버린것이다. 자꾸만 내 문제에 응답받을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하찮은것이고 가치없는 것이다. 그러나 속지 말로 바르게 기도하면 바른 응답이다. 아주 중요한 바탕이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올해는 진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진짜 응답받는것이다. 진짜 생명걸고 증인되어 응답받아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중한 말씀주셨으니 우리모두에게 언약이 되어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